

# NAVER

(035420/매수)

## 캔버스에 그려진 녹색 생태계

- 전자상거래, 네이버파이낸셜 신규 사업 시너지 효과 본격 시작
- 캔버스(CANVAS) 글로벌 웹툰 창작 플랫폼으로 진화 가속
- 목표주가 37.5만원, 매수 의견 유지

### 7월 1일 애널리스트데이 행사, 폭발적 성장세 재확인

전일 동사는 CEO 한성숙 대표를 비롯해 Forest CIC(전자상거래),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웹툰 대표가 나와 각 사업부의 성과 및 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Virtual Analyst Day 행사를 밴드(BAND)를 통해 진행하였다.

NAVER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전자상거래, 파이낸셜, 웹툰 사업 모두에서 가속화된 외형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동사는 하반기 **1) 브랜드 스토어 입점 본격화 2) 네이버 통장과 플러스 멤버십 연계를 통한 Lock-in 효과 강화 3) 웹툰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글로벌 사업 집중**에 힘입어 이러한 성장세를 2021년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상거래와 파이낸셜의 시너지 효과는 이제 시작

압도적인 국내 1위 사업자가 되어가고 있는 쇼핑사업부문은 판매자 수의 성장이 전체 쇼핑사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월 매출 1억원 이상의 스마트스토어 수는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 40%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구매자 수(월 1,000만명, YoY 32%)의 증가로 이어졌다. 7월 중에는 ‘네이버쇼핑라이브’를 오픈해 라이브커머스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도 비대면 소비 증가 및 지속적인 결제처 확장에 따라 5월 기준 월 결제자수 1,280만명(YoY 23%)를 달성하였다. 포인트 결제액의 경우 전년대비 208% 증가하며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다. 주목할 점은 멤버십/포인트/통장 이용이 활성화 됨에 따라 네이버 쇼핑 및 네이버 결제 사용자 모두에게 있어 Lock-in 효과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6월 1일 출시된 플러스 멤버십의 경우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Light User(월 20만원 이하)의 월 객단가가 멤버십 출시 이후 200% 넘게 증가하였다. 지난 달 8일에 출시된 네이버통장 가입자는 가입 이전 대비 결제액은 2배, 결제 횟수는 77% 증가하며 쇼핑/결제 충성 사용자의 Lock-in 효과 강화를 보여주었다.

### 네이버웹툰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업그레이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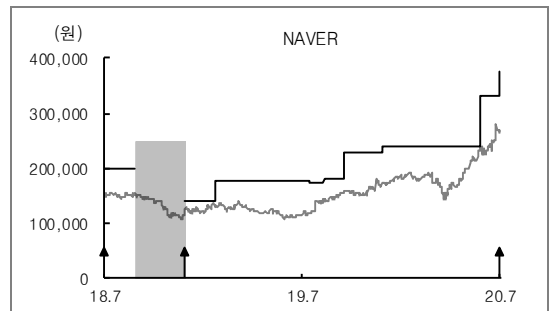
미국 Webtoon Entertainment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을 앞둔 네이버웹툰은 지난 5월 글로벌 MAU 6,400만명, WAU 4,000만명을 달성하였다. 미국에서의 급속 성장, 일본에서의 1위 수성을 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2위 경쟁자와의 격차를 점차 벌리고 있다. 5월 기준 유료 콘텐츠 월 거래액이 700억을 돌파했으며 2020년 예상 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 8,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무적인 부분은 글로벌 웹툰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점이다. 5월 기준 국내외 아마추어 작가 수는 64만명에 이르며 미국 내 아마추어 창작 공간인 **CANVAS**의 경우 하루 1,000개 이상의 에피소드가 올라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연재처를 걱정하기 시작한 미국 작가들에게 창작 플랫폼이 되어주며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1) 크로스보더 유통과 참여번역을 통한 글로벌 생태계의 구축, 2) 리워드 광고 등 신규 BM 도입, 3) IP 비즈니스 확장**이 성공적으로 지속된다면 디즈니, 넷플릭스와의 경쟁도 머지 않은 미래가 될 수 있다.

##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 추이

| 제시일자          | 투자의견     | 목표주가(원) | 과리율(%) |            |
|---------------|----------|---------|--------|------------|
|               |          |         | 평균주가대비 | 최고(최저)주가대비 |
| NAVER(035420) |          |         |        |            |
| 2020.06.30    | 매수       | 375,000 | -      | -          |
| 2020.05.25    | 매수       | 330,000 | -25.47 | -15.45     |
| 2019.11.26    | 매수       | 241,000 | -24.58 | -4.36      |
| 2019.09.17    | 매수       | 230,000 | -30.54 | -21.74     |
| 2019.08.11    | 매수       | 181,000 | -18.87 | -14.64     |
| 2019.07.16    | 매수       | 172,000 | -22.55 | -17.15     |
| 2019.01.23    | 매수       | 176,000 | -30.82 | -21.31     |
| 2018.11.26    | 매수       | 141,000 | -10.50 | -2.48      |
| 2018.08.27    | 분석 대상 제외 |         | -      | -          |
| 2018.04.26    | 매수       | 200,000 | -27.12 | -21.80     |

\* 과리율 산정: 수정주가 적용,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 투자 의견 분류 및 적용 기준

| 기업                                             | 산업                                         |
|------------------------------------------------|--------------------------------------------|
|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
| Trading Buy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
|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악화 |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추가하락이 예상      |                                            |

매수(▲), Trading Buy(■), 중립(●), 비중축소(◆),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 투자 의견 비율

| 매수(매수) | Trading Buy(매수) | 중립(중립) | 비중축소(매도) |
|--------|-----------------|--------|----------|
| 82.04% | 12.57%          | 5.39%  | 0.00%    |

\*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NAVER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NAVER(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